



비영업부서 상품 강제 판매 사례 및 현장개통 업무 점검 실태조사

노동조합은 비영업부서 상품 강제 판매 사례 및 현장 개통 업무 점검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 조사일정

- 1차 점검 : 2005. 1. 17(월) ~ 19(수)
- 2차 점검 : 2005. 1. 24(월) ~ 26(수)

■ 주관부서 : 정책기획실



중앙노사협의회 안건 수렴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5년 1/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안건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여러분께서는 불편과 불만사항에 대한 의견을 소속 지부장, 분회장을 통해 적극 개진해 주시고, 지부장, 분회장께서는 1/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2005.1.20까지 각 지방본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현장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투명한 노사협의회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조직국장회의 위임장 확보·지부대회 등 논의

노동조합은 13일 전국지방본부 조직국장회의를 열어 ▲사외이사 추천 위임장 확보 상황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참가 ▲지부대회 개최 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 조직국장들은 적극적인 위임장 확보를 위해 활동이 부진한 지방본부와 지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앙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중앙 조직처는 빠른 시일내 지침을 마련해 지방본부에 하달키로 했다.

이어 조직처는 2월 초 열릴 예정인 지부대회에 사측의 개입이 없도록 지방본부와 조직국장이 엄정 대처해달라고 당부하고 중앙본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일 속리산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노동조합에 배정된 파견대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여성할당제 시행으로 대의원의 20%이상이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

규약개정
전담반

여성할당제·정치위원회·
선거관리규정 등 논의



규약개정전담반은 전국대의대회를 앞두고 10일부터 14일까지 속리산에서 규약규정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담반은 여성할당제, 정치위원회, 선거관리 규정 그리고 중앙집행위원회 기능 중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일부 조항을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기능으로 이관시키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번 전담반에서 검토된 안들은 상집회의를 통해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12일(수) 이 자리에 격려차 방문한 양정우 사무처장은 규약개정에 있어서 민주적인 조합운영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많은 것들을 심도 있게 토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5년 성과급(효도휴가비 포함) 및 급식통근비 지급기준 변경

2005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과 2004년 단체교섭 합의서 (2004.8.6) 내역반영에 따른 급식통근보조비 지급기준을 노동조합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재식위원장, 신입사원 교육 노동운동분야에서부터 구체적인 복지현황까지 높은 관심과 열의 보여 ...



지재식위원장은 11일 신입사원 연수가 이뤄지고 있는 원주 리더쉽아카데미를 찾아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재식위원장은 먼저 ▲노동조합의 역사 ▲조합편제 ▲의결기구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 또한 최근 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외이사 추천과 관련 “우리 사주조합이 KT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원을 대변하는 이사가 없다”며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진출의 당위성을 알렸다.

이어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최근 청년들이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는데 신입사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강의를 마친 후 노동운동과 복지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사안까지 신입사원들의 많은 질문이 이어졌다.

한 신입사원은 단체협약을 통해서도 경영참여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사외이사를 진출시키려는 이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에 위원장은 “단체협약에 경영참여를 명시한다고 해도 강제성이 없으며 사용자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이사회 참여만이 진정한 경영참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KT의 지배구조가 탄탄하지 못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자본에 의해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정규, 유니온삼제도, 복수노동조합, IT연맹 창립이유, 주택자금 대부 자격제한 등 전반적인 노동운동분야에서부터 구체적인 복지현황까지 묻는 등 매우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끝으로 지재식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신입사원 여러분과 무관하거나 멀리 있지 않다”며 “향후 어디에 배치되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는 당부를 마지막 인사로 같음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에 신입사원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에 대해 만족해 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사를 뒤흔든 신입사원 48명의 함성

원주 아카데미에서 연수중인(1월 3일~1월 14일)인 신입사원 48명이 10일(월) 이른 아침부터 분당 본사를 찾았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서도 출근하는 선배들을 향해 힘차게 인사하는 그들. 몸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만 마음속 열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었다.

“선배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외쳐대는 소리에 오히려 선배들이 흠칫 놀란다. 간혹 “열심히 합시다”라며 응수하는 선배도 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 뜨거운 열정으로 무엇인가 이뤄보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있다. 추위에 종종걸음치는 선배들도 이러한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새해다짐을 되새겨 본다.

노동조합은 12,000여명의 지원자중 최종선발된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며 유니온 샵(Union Shop)제도에 의해 노동조합에 자동가입이 되는 신입사원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란다.



신입사원 권현기 씨

지원동기는 KT라는 깨끗한 기업 이미지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민영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속에서 자기의 비전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았다.

일에 대해서는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회사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다.



신입사원 문영미 씨

경영정보시스템을 전공했고 정보통신분야의 리더인 KT의 가족이 되어 미래를 펼쳐보는 것이 꿈이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사한 만큼 KT에서 내꿈을 펼쳐보이겠다. 1차 목표는 영업분야의 판매왕이 되는 것이다.

KT에 대해 입사전에는 공기업의 이미지가 남아있었는데 막상 입사해보니 내부의 흐름이 상당히 빠른 것 같다. 연수기간 동안 신입사원인 우리들에게 밝은 비전을 많이 보여줘 KT가 젊어졌다는 생각을 가졌다.

한편 신입사원들은 지난 12월 29일에는 정동진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해 새출발은 다짐하기도 했다.

※유니온샵(Union Shop):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자유지만, 일단 채용이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으로부터 제명·탈퇴한 자는 회사가 해고해야만 한다는 것을 정한 노동협약상의 조항.

IT연맹 "겨울방학 맞이 가족 언론학교" 개최
조합원 자녀들의 올바른 언론관 형성에
도움주고자 1박2일 교육일정으로 진행

4주간 KTTU

노동조합에서는 방학을 맞이하여 조합원 자녀들에게 언론 바로보기를 통해 올바른 언론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IT연맹 주관의 가족언론학교를 안내합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 완전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이 바르게 미디어에 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가족신문' 제작을 통해 가족의 일체감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장소 : 계룡산 갑사 유스호스텔
- 일시 : 2005년 1월 29일-30일(1박 2일)

■ 참가대상 및 규모

- 참가대상 : IT연맹 조합원 가족 (KT노동조합, KTF노동조합, 세화이엘씨노동조합)
 - * 조합원 자녀의 연령, 초등 4학년부터 중등 2학년 자녀(단, 1-2살 정도의 위아래 연령 자녀도 가능)
- 참가규모 : 최소 15가족(최대 30가족)

■ 주 최 : 전국IT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신청접수 및 기간

- 접수처 : 신청서(첨부화일)를 작성하여 e-mail로 송부 (ys0303@paran.com)
- 신청기간 : 2005년 1월 10일 - 26일

■ 프로그램

부 모 님	자 녀	가족이 다함께
자녀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할까	재미나는 언론 이야기(올바른 언론관 세우기)	가족신문 만들기
좋은 글 쓰기	미디어 시청각	

	교육	
가족신문 만드는 법	언론을 바로 보면 세상이 보인다	
언론, 바르게 이해하기	도전 '미디어 골든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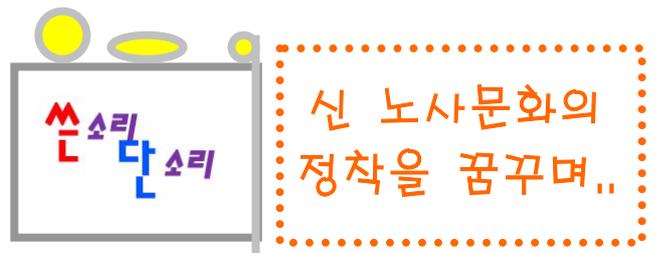
- 참가비 : 30,000원(1인 기준)
- 프로그램 상세 안내 및 신청서 : 노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민주노총 2005년도 정기대의원대회 소집

민주노총 규약 제14조, 15조에 의거 2005년도 정기대의원대회(제33차 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공 고>

- 일 시 : 2005년 1월 20일(목) 오후 1시 ~21일(금) 오전까지
-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
- 대의원대회 안건
 - 2004년 사업보고·평가 및 결산 승인 건
 - 2005년 사업계획·예산 승인 건
 - 조직 혁신위 사업건
 - 2월 입법쟁취 투쟁 건
 - 사회적 교섭기구 대책 건



KT가 노사문화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괄목한

성과를 낸 이 시점에 우리는 노사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에도 신(新)노사문화의 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치고 있다.

노사관계가 꼭 대립적인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노사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업이 늘고 있다. 또한 노동자의 인식 변환이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

단위사업별 투쟁을 인위적으로 조합해 연대파업을 강행함으로써 국민불편과 국가적 손실만 초래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으며, 심지어 노동계 내부조차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파업이 아닌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은 무모한 파업이라는 논란을 빚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보다는 교섭중심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는 다름 아닌 노동자 본연의 이익에 충실 하는 길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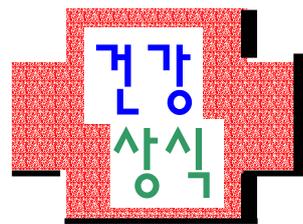
정치투쟁이나 파업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의 크기에 연연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거의 노동운동이 아니라 합리적인 협상과 논리로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노동자와 노조의 지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점이다.

노동 운동을 통해 근로자의 몫이 커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노동 운동을 보면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안되고 국가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노동운동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다. 다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존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측 역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측은 노동자를 단순히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

고 노조가 회사의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누구에게나 자신이 바라고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노동자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다. 물론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가치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협조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노조를 통한 노동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올바른 노사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KT가 국가 대상을 받을 만큼 어느정도의 기반은 다져졌다고 할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 아닐수 없다.



2005년
'건강달력'

[연합뉴스 2004-12-31]

새해를 맞아 늘 하게 되는 건강다짐. 그러나 막상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떠올려보면 막막하다. 그때그때 다른 건강 위험을 미리 따져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때는 다이어리에 그 달 그 달 주의해야 할 특정 건강 위험 요소들을 적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통계적으로 매월 발생하기 쉬운 건강 위해 요소들을 다이어리에 적어 놔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애써보자.

매월 주의가 요구되는 각종 질병을 전문의의 도움으로 알아본다

▶ < 1월 > 독감, 고혈압 주의

겨울은 고혈압 환자 및 동맥경화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계절이다. 특히 추운 날씨 속에서 갑작스런 운동은 혈압상승의 원인이 되며 이는 협

6주간KTU

심증·뇌졸중으로 이어진다.

1월에 돌연사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체온을 적절히 보존하고 갑작스러운 운동은 삼가게 좋다. 또 1월에 기관지염과 천식이 많아지는 이유는 건조하고 더운 실내공기가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 적정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예방에 최선이다.

□ 만성 호흡기 환자 : 집먼지, 집먼지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는 때로 알레르기 성 비염, 기관지 천식 환자들은 조심해야 한다. 항상 신선한 공기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 고혈압 환자 : 고혈압 환자에게 겨울은 부담스러운 계절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말초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다.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보온에 힘써야 하며 항고혈압제도 잊지 말고 복용하자.

□ 피부건조 주의 : 노인들의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며 건조성 피부 질환이 흔 해진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가급적 비누 목욕은 삼가며 목욕 후 베이비 오일 등으로 피부의 수분 손실도 예방하는 것이 좋다.

▶ < 2월 > 정기 건강검진 받으세요

한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건강 점검이 필요한 시기다. 잘 아는 단골 의사에게 자신에 맞는 선별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 남성

- 위암 :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40세~).

- 대장암 : 매년 대변잠혈검사, 5~10년 간격 S결장 또는 대장조영술, 10년 간격 대장내시경(50세~)

- 간암 : 고위험군(간경변증, B.C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만 6~12개월 간격으로 알파태아단

백과 간초음파검사(50세~)

- 고혈압 : 1~2년 간격으로 혈압측정(20세~)

- 바이러스성 간염 : B형간염 면역여부 확인(20세~)

- 비만 : 정기적인 체중과 신장측정(20세~)

- 고지혈증 :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측정(30세 중반~)

- 결핵 : 정기적인 흉부방사선 촬영(20세~)

□ 여성

위암, 대장암, 간암, 비만, 고혈압, 결핵 등은 남자와 같다.

- 유방암 : 2년마다 유방촬영(40세~50세), 3년마다 유방촬영(50세~)

- 바이러스성 간염 : B형간염 면역여부 확인, 산전진찰시 확인검사(20세~)

- 고지혈증 :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지단백 측정(40세 중반~)

▶ < 3월 > 호흡기 질환 기승

3월은 일교차가 10도 이상이고 기후 변화가 심해 신체 리듬이 일시적인 혼란을 겪는 시기다. 생리적 부적응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잠복해 있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 < 4월 > 꽃가루 알레르기 조심

4~5월 중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비염, 결막염, 천식 등 화분성 알레르기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창문을 열어놓지 말고 가능하면 실내에서는 공기 정화기 등을 사용해 알레르기성 물질을 걸러내야 하며 실 내에서 금연은 필수다.

▶ < 5월 > 곤충 등에 물리지 마세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벌을 비롯한 각종 곤충, 벌레, 뱀 등에 의해 물리는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다. 야외 활동 시 주변의 곤충, 벌레, 뱀 등에 주의하고 물렸을 때에 대비해 응급 처치 방법을 익혀둬야 한다.

▶ < 6월 > 일본 뇌염 예방접종

일본 뇌염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7~10월이기 때문에 유행 시기보다 적어도 한달 전인 6월부터 첫 회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 3세 이상의 모든 소아가 접종 대상이며, 처음 접종 시에는 1~2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고, 이후에는 1년에 1차례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 < 7월 > 끓인 음식물이라도 안심은 금물

장마철이 되면서 각종 식중독을 비롯해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 병이 많아진다. 음식물은 끓여 먹어야 한다. 특히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은 어패 류를 날로 먹었을 때 잘 생기므로 생선회 등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처럼 균이 만드는 독소가 원인인 경우에는 음식을 끓인다고 독소가 없어 지지 않으므로 끓인 음식이라고 믿는 것은 금물이다. 또 냉장고를 맹신하면 안된다.

음식 조리 전이나 배변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도상구균의 경우 절반 정도가 손에 묻은 균이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물에 오염된다.

특히 치사율이 50% 이상인 비브리오 패혈증은 주로 만성적인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평소 음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개, 굴 등의 날 어패류와 생선회 등을 날로 섭취했을 때 생긴다.

▶ < 8월 > 냉방병과 바캉스 후유증 조심

오염된 냉각수 속의 라지오넬라균이 인체에 침입해 감기와 비슷한 증상 및 피로감을 일으키는 계절이다. 실내와 바깥의 온도차를 5도 내로 유지해 인체가 적절히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라

지오넬라균의 침투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결막염 : 사람이 많이 물리는 수영장을 피하고 수영 후에도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낸다. 주변의 결막염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음식점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거나 손으로 눈을 비비는 버릇도 금물이다.

□ 외이도염 : 물놀이를 할 때 귀마개를 하는 것이 좋다. 물놀이 후 귀속의 물을 빼낸다고 귀를 후비는 것도 피해야 한다.

▶ < 9월 > 뇌염 모기 조심

주변 환경 중 모기가 서식할 만한 웅덩이나 하수구를 없애고 특히 돼지 같은 중간 숙주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한여름에는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한다.

▶ < 10월 > 독감예방주사 접종

□ 유행성 출혈열 : 유행성 출혈열을 비롯한 렙토스피라, 쓰쓰가무시 병이 많아지는 시기다. 고열, 두통 등 몸살 기운과 기침, 오심,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 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풀을 벨 때는 장갑을 끼고, 풀밭에 눕지 않는다.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긴 옷을 입고, 깨끗하지 못한 웅덩이에 몸을 씻거나 마시는 것은 금물이다.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고, 유행성 출혈열 예방 접종을 한다.

□ 독감예방주사 접종 : 12월 중순부터 다음해 3월 초순까지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적어도 11월말까지는 위험군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대상은 △장기적으로 심장 질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성인 또는 소아 △양로원이나 수용 시설의 노약자 △신장 질환, 당뇨, 빈혈, 천식, 종양,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65세 이상 노인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소아 등이다.

▶ < 11월 > 건조한 날씨, 급격한 기온변화 주의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계절이다. 기온차가 심해지고 건조해지는 만큼 환절기 질환이나 안구건조증, 피부건조증을 조심해야 한다. 또한 등산 등의 야외활동 동시에는 추위에 대비한 장비를 꼭 갖춰 저체온증 등을 예방해야 한다.

▶ < 12월 > 뇌졸중, 심근경색 조심

평소 따뜻한 곳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추위에 갑자기 노출됐을 때 발생하기 쉬우므로 보온에 신경 써야 한다. 평소 혈관질환을 갖고 있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뇌졸중 : 뇌졸중으로 대표되는 뇌혈관 질환은 단일 질환으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되는 질환이다. 날씨가 쌀쌀해질 때 특히 갑자기 추워지거나 일교차가 심할수록 뇌졸중 발생률은 높아진다.

주말에 떠나는
문화체험

경기 포천 노천온천 "일본까지 원정갈 필요없네"

탁트인 눈 앞 산자락
지친 심신 봄 눈 녹듯
공기방울 마사지도

[출처 : <http://travel.waw.co.kr>]

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면서 몸이 자꾸만 움츠러든다. 두텁고 무거운 옷 때문에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 뜨끈뜨끈한 온천욕 생각이 간절한 계절이다. ‘웰빙’ 바람을 타고 최근 경기도 지역에 새로 문을 연 노천탕들이 추위와 피로에 지친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경원선 초성리역에서 꼬불꼬불한 산길을 따라 들어가다보면 소요산 국립공원과 자연산이 마주보는 사이에 포천 신북온천 환타지움이 나타난다. 포천은 위도가 높고 산이 많아 서울보다 겨울철 기온이 3~4℃ 정도 낮다.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이 매섭지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노천탕에 몸을 담그면 칼바람도 시원하게만 느껴진다.

많은 노천탕이 답답하게 담을 둘러치고 지붕만 뚫어놓은 모양이지만, 신북온천 노천탕은 앞이 탁 트여있다. 따뜻한 탕 속에 앉아 바로 앞에 솟아있는 자연산의 산세를 구경하고 있노라면 몸은 나른하고 눈은 심심하지가 않다.

때로 높푸른 하늘에서는 날개를 펼친 매가 끝없이 원을 그리며 바람을 탄다. 이렇듯 따뜻한 물속에 앉아 주위의 산과 자연을 구경하다 보면 피로는 물속으로 사라지고 찬 바람 맞은 머리는 맑아진다. 최근 유행하는 반신욕 열풍의 기원이 바로 노천탕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노천탕이나 온천은 노인들이나 가는 곳이라는 생각은 낡아버렸다. 최근 들어서는 온천은 대부분 수압과 공기방울을 이용한 다양한 마사지 시설을 갖춘 수영장을 끼고 있다. 신북온천에도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물 뿐만 아니라, 벽과 바닥에서 솟아나는 물 마사지 시설을 갖춘 500평 규모의 수영장이 마련돼 있다.

신북온천 수영장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온가족이 함께 물놀이하듯 온천욕을 즐길 수 있다. 목욕탕이라면 좋아하지 않을 아이들도 수영장에서 물장구를 치고 놀다가 저도 모르게 온천욕을 하게 된다. 미끈미끈한 온천물은 피로는 물론 추위와 감기도 녹여버리는 듯하다.

이밖에 포천에는 산정호수 한화콘도, 일동 제일유황온천, 웨스턴밸리 등 노천탕을 갖춘 곳이 많으며, 용인, 이천, 파주도 노천탕과 온천탕으로 유명하다.

지방본부소식



지부소식

